

재미와 심층보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KBS부산 <부산NOW>모니터 결과

모니터대상: KBS부산 <부산NOW>

모니터기간: 2015년 1월 14일(1회)~ 2월 11일(5회)/ 총5회분

참여 및 정리 : 부산민언련 모니터분과

(1) 프로그램 개요

* **방송일시:** KBS 1TV 매주 수요일 저녁 19:30-20:10

* **프로그램 소개:** 지금,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와 현안을 가장 빠르게 전달

* **코너 소개**

1. 한 주간을 가장 뜨겁게 달군 현장이나 인물을 프로듀서가 직접 찾아가는 ‘강피디가 간다’
2. 셀카를 통해 사회 현상을 들여다보는 ‘셀카 다이어리’
3.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이런 시사’

* **제작진**

-PD: 최영승, 허용석, 손준영, 이경민, 강민채

-작가: 김경림, 하은지, 구지영, 강은하, 장지혜

-MC: 최현호

(2) 회차별 시청소감

1회 1/14	1) 방문관리사 해고 사태, 취약계층 건강은 누가 돌보나
	<p>-한현미 간호사를 주인공으로 삼아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라 이해가 쉽고, 출연인물에게 감정이입이 되었다.</p> <p>-방문간호사의 일상, 시위현장, 다른 군의 사례, 기자회견장 등 이슈와 관련한 거의 모든 곳을 취재한 점이 돋보였다.</p> <p>-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무기계약 전환률 지표, 구청장들 간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문서 등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신빙성을 더했다.</p> <p>-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으로 접근한 점이 긍정적이었다.</p> <p>-10월16일 구청장과의 회의 후 담합 의혹과 입장 번복을 제기했는데, 당시 참석자의 인터뷰나 입장을 번복한 구청이 어디인지 구체적 정보제공이 필요해 보였다.</p>
	2) cctv실태, 나는 내가 오늘 한 일을 알고 있다
	<p>-정보오락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새롭지만 어색하기도 하다.</p> <p>-진행자가 거리의 시민들과 카메라를 향해 “안녕~” 인사하는 장면이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는 장면이 생뚱맞게 느껴졌다.</p> <p>-셀프카메라로 촬영한다는 기획인데 방송분량에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을 보아, 처음 제작의도를 살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된다.</p> <p>-해당 내용과 관련해 궁금할만한 정보들은 도표나 그림으로 소개해줘서 친절했다.</p>

	<p>-피디와 아나운서가 내레이션으로 대화를 주고받듯이 진행하여 편안하게 들리나, 첫 회라 그런지 산만한 감도 있었다.</p> <p>3) 일자리 시장, 서병수를 만나다</p> <p>-일자리 정책에 대한 분석은 없고, 시장의 짐무실과 토크콘서트 등을 따라다니며 행보를 보여주는 데 치중하여 오히려 시장을 미화 또는 홍보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특히 MC가 마지막 정리 멘트로 “(시장이) 딱딱하게 보였는데 친근하다”는 식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p> <p>-일자리에 관한 언급은 ‘젊은이들을 위해 부산지역에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인터뷰한 1분 분량이 전부여서 제목이나 기획의도에 걸맞지 않았다.</p> <p>-읽고 있는 책과 서류가 미리 준비된 것처럼 보여 억지스러웠다.</p> <p>-시민과 소통하려는 모습, 무협지를 좋아한다는 내용, 정치 입문과정 등을 다루는 것보다는 시청자들의 알 권리이자 시장의 큰 공약인 신공항이나 고리1호기 폐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공익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p> <p>-서병수 취임 1주년에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한다면 프로그램 취지에 맞을 것 같다.</p>
<p>2회 1/21</p>	<p>1) 불법도로 개설로 금정산 산림 훼손</p> <p>-깎여나간 토사와 벌목 현장을 기록하고, 도로 폭을 재어보고, 항공촬영으로 규모를 보여주는 등 현장성이 돋보였다. 영상의 장점을 잘 활용했다.</p> <p>-손으로 카메라를 막는 등 취재를 방해하는 원효암 스님의 행태를 고스란히 방송해 오히려 더 불법 비리 의혹이 잘 부각되었다.</p> <p>-불법도로를 만든 당사자인 원효암이나 환경단체 등 관련한 거의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취재를 성실히 했다.</p> <p>-범어사의 암자 중 하나인 원효암이 금정산을 훼손시킨 당사자인데, 방송을 봐도 누구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공사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p> <p>-관할 구청의 업무 태만이나 뒷북 행정도 문제인 것 같은데, 구청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p> <p>2) 밥 해 먹읍시다!</p> <p>-소포장제품을 소개하고 간편식 구입 경험 수치를 제시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코너가 정통 시사프로그램에는 안 어울리지만 새로운 시도가 좋았다.</p> <p>-혼자 사는 사람들의 쌀 보관법,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 등이 기발해보였다.</p> <p>-아직 초반이라 어색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p> <p>3) 가덕도 신공항 유치, 가능한가?</p> <p>-5개 시도지사 합의로 새 국면에 접어든 신공항 건설 문제를 다뤄서 공익적이었고, 부산 언론에서는 보기 어려운 타 지역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조금은 객관적 시각에서 신공항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p> <p>-신공항 추진 과정과 쟁점을 부각했는데, 거기에 앞서 왜 신공항이 필요한지, 왜 서로 자기 지역에다 건설하려고 하는지 궁금했다.</p> <p>-서병수 부산시장이 신공항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공약한 이유, 동남권 신공항</p>

	<p>추진 일지, 현 정부의 가덕 신공항 건설 로드맵, 국토부 입장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정보가 일목요연하였다.</p> <p>-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2012년 11월30일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부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자료 영상도 첨부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도 촉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p>
3회 1/28	<p>1) 토양보존 못하는 토양환경보존법</p>
	<p>-전체 분량 중 대부분인 7분30초 정도를 현황을 보여주는데 할애하고, 전문가(교수)인터뷰를 했지만 해당 토지의 오염이 유해한지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다.</p> <p>-해당 토지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토양환경보존법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까지는 가지 못했다. 오염된 암반을 정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었다면 좋았겠다. 현대 측이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의로 발뺌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정화가 진행될 몇 년간 (주)DSE의 손해는 누가 충당해 줄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해 보였다.</p> <p>-취재 진행 중에 해당 부지의 이전 소유주인 현대오일뱅크, 현대상선, 현대그룹 관계자 등이 KBS에 찾아와 기름을 정화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일의 해결에 도움이 된 것 같아 공익적이라고 느껴졌다.</p>
	<p>2) 시각장애인, 그들이 사는 세상</p>
	<p>-시각장애인 단체의 제보를 받아 진행자가 시각장애인의 실제 생활(은행계좌 개설, 버스 타기 등)를 시도했는데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은행에서 서명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 정차한 버스의 번호를 알기도 어렵다는 사실이 잘 와 닿았다.</p> <p>-러닝타임이 짧아서 두 가지 정도의 체험에 그쳤다. 눈을 가리고 셀카로 촬영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고, 체험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깊이 있는 내용 전달은 안 되었다. 셀카가 적합한 형식이 아닌 것 같다.</p> <p>-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등 제도가 미비한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부족했다.</p>
	<p>3) 방사능 공포, 이제는 물까지?</p>
<p>-주민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절했다.</p> <p>-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데, 왜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지, 왜 강행하는지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미흡했다.</p> <p>-부산시와 기장군의 입장도 소개했으면 좋았겠다.</p> <p>-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고리원전 부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섭취해도 되는지 의문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후속 방송이 있으면 좋겠다.</p>	
4회 2/4	<p>1) 눈물의 막걸리, 생략 노동자 장기파업</p> <p>-생략 파업에 대해 궁금한 경우, 이것 한 편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해할 만큼 간결하면서도 쉽게 정리를 잘 해냈다.</p> <p>-인터뷰이의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잡아낸 인터뷰가 자연스럽게 생생했다.</p> <p>2) 어린이집 보육교사 도전기</p> <p>-첫 회에 비해 시작부터 ‘셀카 다이어리’라는 코너의 특징이 잘 느껴진다.</p>

	<p>-최근 어린이집 학대사건 때문에 비난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근무실태와 처우를 살펴본다는 기획의도이나, 진행자가 일일 보육교사 체험해보는 형식으로 진행해 깊이감은 없다.</p>
	<p>3) 다이빙벨 상영 보복? BIFF 집행위원장 사퇴 종용 논란</p>
	<p>-현재 상황을 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 영화제나 과거의 사례, 앞으로 우려되는 지점까지 담았다는 것이 의미 있다.</p> <p>-주로 영화제 관계자들을 인터뷰 했는데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인만큼 시민들의 의견도 담았으면 어땠을까.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막으로 안내하고 독려한 것은 좋았다.</p> <p>-진행자의 마무리가 너무 낙관적이라서 취재 클럽 내내 이끌어 온 비판적인 시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p>
5회 2/11	<p>1) 고마해라 고리1호기-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나다</p>
	<p>-고리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와의 인터뷰</p>
	<p>2) 밥 같이 먹읍시다2- 독거노인, 밥도 사람도 고프다</p>
	<p>-진행자가 독거 어르신을 찾아가 같이 식사를 하는 형식. 혼자 사는 어르신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기획인데, 출연하신 할머니가 자꾸 “나는 괜찮다, 문제없다”고 하여 그런 점이 부각되지는 않았다.</p> <p>-두 번째 코너를 마치자마자 제보 요청 멘트가 나와서 어색하고 당황스러웠다.</p>
	<p>3) 서면 대현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이관 논란</p> <p>-취재과정 중 간담회가 열려서 의미 있었다. 서류를 화면에 등장시키고 그 중에서 독소조항을 짚어내는 부분이 객관성이 있다고 느껴졌다.</p>

(3) 총평

- 개편 이전 프로그램인 <시선360>에 비해 한 아이템 당 러닝타임이 줄어들어서 심층적인 코너의 경우 15분 정도를 방송하고 있다. <시선360>은 25분 이상이어서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짧아지니까 응집력 있는 구성이 되었다. 각 회차 중 한 편 정도는 정통 시사프로그램에 걸맞게 잘 나온다.
- 방영시간이 수요일 저녁 7시30분이어서 접근성이 좋다. 지난 방송분을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하고, 시청자 게시판의 글에 바로 답글이 달리는 등 시청자에게 다가가려는 의지가 느껴진다.
-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각 코너별 제목과 컨셉이 있는데 실제 방송분에서는 그냥 첫 번째 NOW, 두 번째 NOW로 나가서 아쉽다. 지속적으로 컨셉을 고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막으로 코너제목을 소개하고 세 가지 코너가 좀 더 차별화되도록 제작하면 좋겠다.
- 첫 번째 코너인 ‘강피디가 간다’의 현장성이 돋보인다. 앞으로 PD의 역량이 기대된다.
- 두 번째 코너인 ‘셀카 다이어리’는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 5회차 방송하는 중에도 형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차차 가장 나은 방식을 찾아나갔으면 한다.
- 세 번째 코너인 ‘이런 시사’는 지역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기획의도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주로 현재의 상황을 담는 것에 치중하는데 구조적인 문제와 이면의 배경까지 짚어주었으면 좋겠다.
- 5회차 동안 다룬 아이тем들을 보면 대체로 부산지역의 현안을 골고루 적절하게 담고 있다.
- 부산의 권력에 대한 정면 비판은 없다. 첫 회 서병수 시장 편은 이 프로그램에 걸맞는 인터뷰는

아니었다. 앞으로 명사를 다룰 때는 그 사람이 관련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녀 진행자가 등장해 가볍게 대화를 나누듯이 진행하는 것은 요즘 유행을 따른 것 같다. 남자 아나운서가 사회초년생 느낌에다 강약 없이 너무 매끄럽게만 멘트를 해서 오히려 여자 피디보다 전달력이 떨어진다.

-진행자의 마무리 멘트가 두루뭉술하고 전형적이어서 취재에서 부각한 논점을 뭉개는 느낌이 든다. 통합형 정리 멘트보다 날카로운 문제의식으로 여운을 남기는 멘트를 기대한다.

-시사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보기 쉽고 트렌디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개편 이전보다 재미있어서 시청자의 눈길을 잡아두는 면이 있다. 재미와 심층보도를 아우르고자 하는 시도가 성공했으면 한다.

* 사진 및 별점 점수

-수요일 저녁 7:30. 바로 이 곳이 부산 NOW ★★★★★

-부산 NOW. 지켜보겠다. ★★★

-발 빠른 부산KBS PD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

-‘재미’있는 시사프로그램, 부산 NOW ★★★★★

-한 눈에 지역현안 알려준 부산 NOW 좋아요! ★★★★★

